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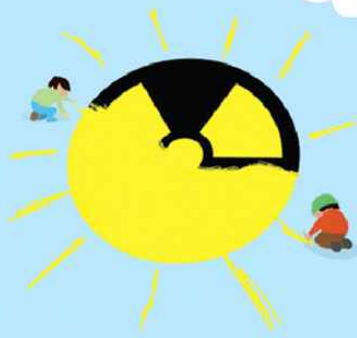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속살!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최고급 러시아 병동대게	1644-9047
대게직거래장터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뚫!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032-519-4800
내피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박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역사의 진보, 우리가 이뤘다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12.12입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군사 쿠데타를 벌인 날입니다. 역사의 후진을 도모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굴하지 않고 역사가 어떻게 진보하는지 우리를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개월이 채 안 된 기간 동안 우리는 용기를 다시 얻었습니다. 평화적 촛불시위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또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명박이, 박근혜가 살인적인 진압과 외면 불통 일색의 무시로 힘을 뺐던 촛불, 그 촛불이 국면 국면 고비 고비마다 큰 힘을 받

후에 시민혁명 1차 승리를 도출해 냈습니다. 또 우리는 공동체를 다시 얻었습니다. 경쟁, 효율, 욕망을 위해 인간을 서열화하고 도구화하고 그리고 끝내는 말살해온 그간의 굴레를 떨쳐버렸습니다.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며 상생하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정신을 다시 얻었습니다. 보다 나은 학점, 보다 나은 출세, 보다 나은 혼사를 위해 낭만과 자존심, 지성, 심지어 저항정신까지 담보 잡혔던 우리의 청춘들이, 헬조선을 스스로 타파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전두환 시기에 없었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0%, 노예를 강요받았던 청춘은 이렇게 자생적으로 사회의 빛이 됐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노래를 다시 얻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렇습니다. 검은 지우개로 역사 속에서 이 노래와 이 노래의 역사성을 말살하려던 세력들, 그들은 지난 주말 도심 한 복판에서 찌렁찌렁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에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촛불혁명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와 뜨겁게 조우했습니다. 되찾은 민주주의, 되찾은 광장에서 목청 높여 제창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의 김용민브리핑

- 12월 12일(월) 1부 | 주진우 "사드배치, 최순실 결정적 역할" [오프닝] 다시 되찾은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인터뷰] 주진우 "100조는 기본·방산비리 몸통 최순실"
- 70% "차 즉각 사퇴해야"·83% "현재, 단핵 결정해야"
- 문재인 1위... 이재명, 반기문 제치고 2위 경쟁
- 특검이 차대통령 뇌물죄 입증하면 현재 판단 빨라질 듯
- 전 靑 조리장 "최순실, 6월까지 靑 출입" "김기춘 거짓말"
- [뉴스듣기능력평가] 그날 "역적들 머릿통 날린다"던 그 사람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탄핵안 통과 후 흔들리는 외교안보 환경
- 러시아, 트럼프 당선 도우려 미국 대선 개입했나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12.9 촛불혁명, 불현듯 울산 노동자 후보 떠오른 이유
- : 12. 9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방송 실행
- [공화국 논평] 변기 교체 폭로한 송영길에 대한 중대 조치

민심의 향배

한국일보 국민 70% “헌재 결정 전 차 사퇴”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대통령 박근혜가 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다”고 밝힌 응답자가 85%에 달했다.

대선후보 지지도(단위:%)



83% “헌재, 탄핵 인용해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의 95% 이상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해 촛불민심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대별로는 20~40대까지는 90% 이상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 확정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반기문 둘러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투표한다는 사람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간발의 차이로 앞지르며 2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 불출마 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1,2위를 기록해 다른 주자에 비해 확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이 본 헌재

한국일보 “헌재, 대통령 파면 가능성 높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전문가들 10명 가운데 9명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헌법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대다수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들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법 실무를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사실관계만 확정된다면,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 “헌재, 집중심리로 곧 결론내야”

한겨레가 학자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심리 기간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내년 1월 말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내년 1월 말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이유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탄핵 심판과 상관없이 대통령 박근혜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특검 뇌물죄 입증이 판결일 결정

박근혜 탄핵심판이 특별검사 수사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인물들의 재판과 맞물려 본격 착수됐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특검 수사 시한인 내년 2월 27일까지의 성과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탄핵 사유로 명시해둔 터라, 특검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밝힌다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대한 신임 민정수석

朝鮮日報 새 민정수석, “박근혜=뇌물죄”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 박근혜는 민정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조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달 5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강제 모금은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조대한 민정수석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글의 주체를 박근혜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말장난하고 있는 셈이지.

JTBC 조대한 “세월호 유가족은 조사대상”

이어서 JTBC 보도, 조대한 민정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JTBC는 조대한 당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 전문을 확보했다. 이메일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명백한 조사대상자이며 조사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대한 당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은 결국 “특조위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결근하다가 사직했다. 특조위 없애기 위해 특조위에 간 경우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힌겨레 정호성, 최순실 G메일로 문건 유출

검찰이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은 대통령 박근혜의 비호 아래 청와대를 수시로 무단출입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 수백건을 전달받았다. 문건 전달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이뤄졌으며 주로 최순실과 공유한 구글 지메일 아이디를 통해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 검찰은 지메일을 통해 유출된 자료가 237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895회 통화를 했고, 문자는 1197차례 주고받았다.

東亞日報 “문건유출 국기문란” 이내놓고

대통령 박근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초대 행정부 조직도와 조각명단, 대통령 순방 자료 등 무차별적으로 문건을 최순실에게 넘겼다. 자료 유출은 최임 초기부터 최근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는 ‘정윤희 문건 유출 사건’ 직후인 2014년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청와대 전 조리장의 폭로

東亞日報 “최순실, 6월까지 매주 靑 출입”

3년 4개월 동안 박근혜의 양식 조리장을 지낸 한상훈 씨가 “최순실은 올해 6월까지도 ‘문고리 3인방’과 매주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해외순방 일정이 있으면 평일에도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 직원들은 최순실이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으로 짐작했다”고 말했다.



·오늘을 읽는 책·
거세된 희망

플리 트인비 지음 | 이창신 옮김 | 개마고원 | 2004년 1월 8일 출간

CHANNEL “김기춘, 최순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어서 채널A 보도, 청와대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던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대통령 박근혜 임기 내내 관저에서 몸담았던 한상훈 전 조리장의 말에 훨씬 무게가 실린다고...

CHANNEL “머리 안했다 작별 인사도 안 받는 척”

박근혜는 지난 6월 한상훈 전 조리장의 퇴직 인사를 받지 않았다. 한상훈 전 조리장은 그날까지도 점심을 만들었다.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의 머리와 메이크업이 안됐으며 말을 대신 전했다고 한다. 채널 A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는 관저에 머물다가 뒤늦게 미용사를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다.

탄핵 반대 56표, 무효 7표

중앙일보 친박, “김무성·유승민과 결별”

새누리당 친박계가 현역 의원만 50명에 달하는 대규모 친박 공식모임을 만들었다. 모임 이름은 ‘혁신과 통합연합’이다. 모임의 대변인 격인 친박계 민경욱 의원은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 선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며 비박계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서울신문 고의 무효표, 탄핵 표결 오점

국회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7개에 달하는 무효표가 나왔다.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짓는 헌정사의 중대한 표결에 오점을 남겼다. 검표위원들은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어 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표 인증샷을 찍고 무효표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부역자라는 비난에 면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이야기다.

반기문도 가고...

朝鮮日報의 걱정, 보수 대선 주자 없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내년 3월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안 보이자 조선일보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기사 소개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에서 ‘새누리당에 간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기문 총장을 제외한 여권 주자 대부분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친박계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손학규가 친박 차기 주자로? 손학규 전 고문이 모욕을 느껴야 할 일이다.

외신 반응

국민일보 가디언 “박근혜, 곧 떠나야”

국민일보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 대한 해외 반응을 소개했다. 외신 가운데 영국의 유력 진보 일간지 가디언은 대통령 박근혜의 조기 퇴진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저성장, 청년실업 등에 북한의 도발, 트럼프 당선이 맞물린 상황을 지적하며 박근혜는 바로 지금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김연철 인제대 교수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한겨레 칼럼이다.

“박근혜 정부를 망친 주범은 무엇일까 부터 짚어보자. 먼저 착각을 들 수 있다. 아버지의 시대가 저물었는지도 모르고, 딸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 위에서 살았다. 그중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다. 박근혜는 부패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짐이 곧 국가’인 왕조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공과 사를 착각하면 거대한 부패만 남는다. 시대착각은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니다. 바로 박정희 체제의 본질이다. 딸의 착각이 결국 박정희 체제의 청산 필요성을 드러냈다. ‘물려줄 것은 부끄러움 뿐’인 정부는 ‘딸의 4년’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18년’이었다.

왜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공안검사들이 차지했을까? 너무 부패했고 감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색깔론으로 정권을 잡고, 모든 남북관계의 문을 닫은 공안세력은 다시 ‘겨울공화국’을 만들고자 했다. 고문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사람이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종북으로 몰았다. 고문을 지휘했던 사람이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슬픈 흥터’인 국가폭력을 다시 살려내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살해하고자 한 자들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tbsTV 12월 13일(화) 밤 9:30